

절대강자없는 민주당 경선 ‘안갯속’

도지사 후보 ‘오영훈 vs 문대림 vs 위성곤’ 3파전 오·문 ‘감산’ 최대 변수... 1, 2위간 ‘결선’ 가능성 ↑ 제주 정가 “여론조사 무응답자 많아 예측 어려워”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선 같은 경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문대림·위성곤 세 후보가 초반부터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여 각 캠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경선을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압축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3파전인 이번 경선에서 50%가 넘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오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광역단체장 하위 20% 평가 결과로 경선 득표율 20% 감산이 적용된다.

문 의원도 과반 이상을 득표하더라도 과거 탈당 전력에 대한 감산 25%가 확정될 경우 득표율이 감산된다. 민주당에서는 문 의원에게 감산 대상임을 통보했고, 아직 감산 면제에 대해 의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감산 적용이 없는 위 의원은 50%

넘는 과반을 득표하면 그대로 1위가 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선이 현역 지사와의 대결이고, 각 후보가 제주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3자 구도인 만큼 과반 득표는 쉽지 않은 목표라는데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본선에서는 결선 진출 기회를 갖기 위한 싸움이 근소한 득표율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득표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세 후보의 지지율이 30:30:30으로 대등하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경선 감산을 적용하면, 오 지사는 득표율의 20%가 감산돼 24%의 최종 득

표율을 기록하고, 문 의원은 25% 감산 시 22.5%의 최종득표율이 된다. 반면 위 의원은 감산없이 30%가 된다. 같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감산 결과에 따라 1,2,3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이번 경선이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단 몇 % 차이로 운명이 갈릴 수 있어 각 캠프 별로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현직인 오 지사와 도지사 선거를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고 있는 문 의원의 경우 당원 지지 확보에 보다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 의원은 첫 도지사 선거 출마라는 점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이는 후보가 있다면 그 추세를 따라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예측이 어려운 경선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는 세 명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는 구도”라며 “지금의 여론조사는 무응답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지율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3명의 후보가 같은당 소속이라 정책 지향점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공약에는 큰 차별성을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를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서 얼마나 실천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도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입맛 돋우는 봄나물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봄철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이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민기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보훈장관 제주서 4·3 유족 만나다

“등록 결정 취소 관련 설명 유가족 의견 청취하고 위로”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4·3 유족의 입장을 듣는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현화·참배한 뒤 4·3희생자유족회와 만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픔을 위로한다.

특히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취소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령의 양손자로부터 무공수훈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서훈 사실과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

둔한 제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4·3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보훈부에 지시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 결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6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제주 방문 첫날인 12일 제주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자택을 방문하는 한편 제주지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또 제주 준보훈병원 도입을 앞두고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보훈대상자의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4·3 유족증 발급 ‘6만건’ 눈앞

올 2월말 기준 5만3645건 항공·의료·문화시설 혜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발급되는 유족증 누적 발급 건수가 6만건에 가까워 지고 있다. 도는 유족증 소지자를 위한 항공·의료·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4·3희생자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5만3645명이 발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발급 현황을 보면 2023년 6402건, 2024년 1만901건, 2025년 5140건, 2026년(2월 말) 545건이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주차·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제주항공 국내선 이용 시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유족 2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감면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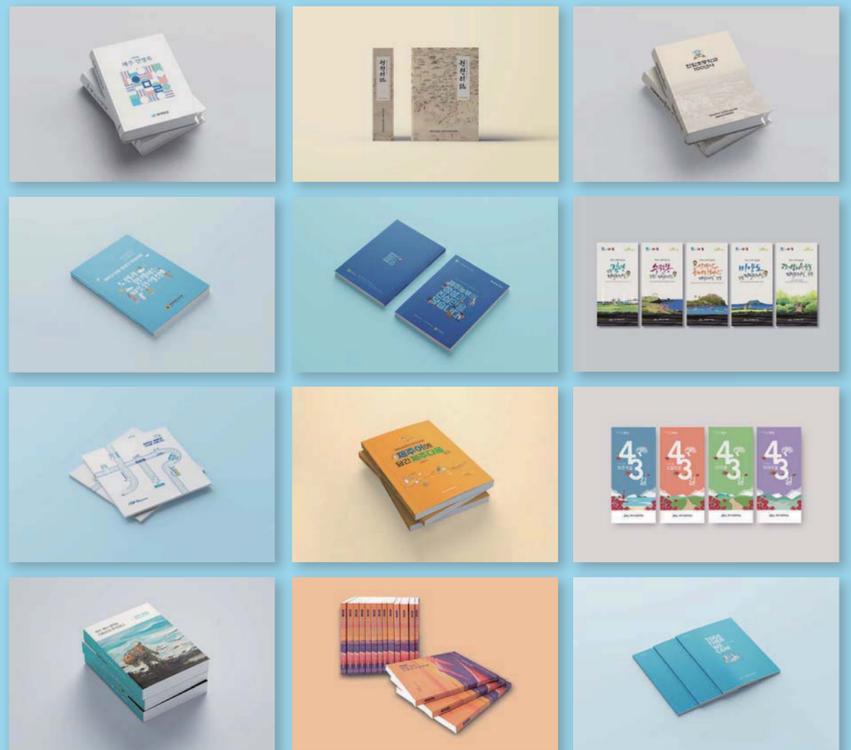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기상악화 땀 기름 공급 ‘비상’... 4면 / 경기침체 여파 사교육비 감소... 6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리일보 창간 37주년을 축하합니다

디자인 리더 제주
064) 746-0775



DESIGN leader JEJU